



## 2007 전국양돈지도자 연수회 대성황

- 본회 전국 지부(회)장, 양돈자조금 대의원 등 양돈지도자 350여명 참석
- 고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 등 4개항 결의
- 농림부 장관과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함께 열려

### 한자리에 모인 전국의 양돈지도자들

2007년 전국양돈지도자 연수회가 지난 5월 22일~23일 양일에 걸쳐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본회 김동환 회장 및 본회 임원 및 전국 지부(회)장, 양돈자조금 관리위원 및 대의원, 양돈조합 조합장 및 조합 임원 등 전국의 양돈지도자 350여명과 박홍수 농림부장관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본회가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한·미, 한·EU FTA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내 양돈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양돈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개최한 '2007년 전국 양돈지도자 연수회'는 전문가의 특강과 농림부 장관과의 간담회, 화합의 시간 등 알찬 행사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 양돈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돈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큰 화합의 장이 되었다.



▲ 개회사에 나선 김동환 회장은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양돈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양돈지도자들이 국내 농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문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쌀 다음의 대표 농업품목인 양돈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한경쟁시대, 양돈인의 의지와 자신감 중요

이날 개회사에 나선 김동환 회장은 “한·미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 양돈산업과 경쟁해 이길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양돈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양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양돈농가들이 용기를 잃지않고 더욱 고품질 안전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양돈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장이 참석해 양돈지도자들을 격려했으며,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에서 박홍수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한미 FTA로 겪고 있는 양돈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FTA 종합대책의 보완, 양돈산업

의 재도약 기틀 마련 등 과제 해결을 위해 양돈지도자들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히고 “우리 농업의 미래는 이 자리에 모인 양돈지도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합리적인가, 각자 위치에서 얼마나 강한 자신감으로 양돈산업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홍문표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쌀 다음의 대표 농업품목인 양돈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양돈지도자들과 힘을 합쳐 농가의 권익을 위해 결집된 힘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신뢰받는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 등 4개항 결의

연수생들은 연수에 앞서 본회 정일희 이사를 대표로 하여 한미 한 EU FTA 등 개방화 시대에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돈지도자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자는 선서가 있는 후, 본회 안희영 이사의 선창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의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돼



▲ 안희영 본회 이사의 선창으로 전국의 양돈지도자들은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등 4개항 결의했다.

지 질병 근절을 위해 소독과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 ▲가축분뇨 자연순환을 통해 친환경 양돈 산업에 앞장설 것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 설 것 등 시장개방 여건아래 우리 양돈산업을 지키고 21세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양돈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 양돈산업 FTA 세부대책 발표

한편 연수회에는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의 'FTA에 대한 정부 정책' 설명과 함께 본회가 마련한 '양돈산업 FTA 세부 대책'에 대한 김동환 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동환 회장은 양돈산업 FTA 세부대책을 통해 한미 FTA 등 다가오는 통상환경의 변화가 국내 양돈산업의 시대적 전환을 요구있다고 판단, 향후 5년내에 국내 양돈업이 FTA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돈협회가 발표한 이번 대책(안)에는 미국의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생산비 대비 30~50%의 낙 후된 경쟁력을 4조 7,469억원을 10년간 투자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안)은 생산뿐만 아니라 양돈 관련산업 전부문에 걸친 '혁신', 그리고 양돈농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양돈산업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정부에 대한 막연한 지원 관행을 철저히 지양,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각 사업별 당위성과 함께 소요비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까지 제시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 및 양돈업계의 공동의무 이행과 지원의 지원을 통한 양돈통합기구 출범으로 국가 양돈산업의 구심체를 분명히 하고 양돈농가와 양돈업계 공동의무 이행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편 본회 하태식 부회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FTA 대비'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PTC+ 실습장을 중심으로 한 우수 해외양돈 사례발표와 함



▲ 'FTA에 대한 정부 정책' 특강을 하고 있는 농림부 이상길 축산국장



▲ '생산성 향상을 통한 FTA 대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하태식 부회장



▲ '생존을 위한 한국 양돈산업의 대구조조정'이라는 주제 강연을 한 정찬길 건국대 명예교수

게 정찬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생존을 위한 한국 양돈산업의 대구조조정'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FTA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 국내 양돈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튿날, 충남대 박종수 교수의 '2006년도 양돈자조금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되어 양돈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양돈산업 주요 현안 해결방안 토의



▲ 양돈지도자연수회를 맞아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양돈 지도자들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양돈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양돈 지도자들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양돈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토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양돈산업은 우리 농업 중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중의 하나"라며 "한·미 FTA협상으로 돼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양돈산업 발전으로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박장관은 "한·미, 한·EU FTA 등 관세 철폐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양돈산업은 타 축종과 달리 소모성질환, 가축분뇨문제 등 몇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돈**